

## HPAI가 오리산업에 미친 영향은

# 1. HPAI 이후 오리산업 기반 위축 심각



## 회복세 더디고 사육수수 및 농가수 감소 유럽 시발생으로 원종오리 수입도 차질

각종 오리관련 지표를 보면 HPAI로 인해 오리산업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2020년 10월말에 발생한 HPAI로 인한 살처분과 입식 제한으로 인해 올해 오리고기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 영국에서 HPAI 발생에 따라 원종오리 수입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내년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해 오리고기 생산량을 살펴보면 9월말 현재 도축마리수는 478만3천수(검역본부 집계)로 전년 동월 637만3천수에 비해 2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초까지 발생한 HPAI로 인해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살처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HPAI 종식 이후에도 입식이 늦어지면서 육용오리 사육마리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 HPAI로 인한 살처분, 입식제한으로 생산량 급감 겨울철 사육제한조치로 내년에도 수급 차질 예상

10월 1일 기준(협회 조사) 육용오리 사육농가수는 362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는 627만7천378수로 이는 전월대비 7.2%가 감소한 것이며 전년 동월 대비 13.7%가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그 동안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냉동 재고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월 12일 기준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냉동 재고량은 84만7천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 584만8천수에 비해 14%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500만수를 웃돌았던 냉동재고량은 올해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1월 456만2천수였던 것이 매월 100만수씩 감소하며 오리고기 최대 성수기인 8월에는 33만6천수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올해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냉동 재고로 인해 수급을 맞출 수 있었지만 내년에

는 공급량 감소로 인한 수급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PAI 발생 우려에 따라 사육제한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농식품부는 9개 시도 48개시군구, 144개 읍면동을 핵심지구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포함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육제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육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농가수는 179호에 사육마릿수는 311만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제한농가 및 사육마릿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위적인 사육마릿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육용오리 사육현황

현재(10월1일)기준, 총 362농가에서 6,277천수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전월(6,762천수) 대비 7.2% 감소, 전년동월(8,880천수) 대비 13.7% 감소한 수준

구분	사육농가	사육수수	구분	사육농가	사육수수
2020년 10월 1일	418	7,270,700	2021년 5월 1일	341	5,870,500
2020년 11월 1일	398	6,862,400	2021년 6월 1일	351	6,080,170
2020년 12월 1일	374	6,844,650	2021년 7월 1일	382	6,578,400
2021년 1월 1일	224	3,859,000	2021년 8월 1일	400	6,903,700
2021년 2월 1일	164	2,871,000	2021년 9월 1일	391	6,761,900
2021년 3월 1일	194	3,598,900	2021년 10월 1일	362	6,277,378
2021년 4월 1일	313	5,350,200	전월대비 농가수 7.4% 감소 / 사육수수 7.2% 감소		

\* 자료 : 7개 주요 계열업체 집계 자료

## 원종오리 수입도 차질, 장기적 어려움 예상

이 뿐만 아니라 종오리 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장기적으로 오리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HPAI가 발생됨에 따라 올해 원종오리 수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오리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다. 영국도 HPAI 발생으로 인해 지난 9월 3일에 이르러서야 청정국 회복을 선언했으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에 이르러서야 수입이 가능해 졌다. 때문에 11월 5일에 이르러서야 원종오리 1차 수입분이

도착했다. 이처럼 원종오리 수입 차질과 함께 HPAI로 인한 종오리 살처분으로 인해 종오리 사육마릿수도 평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55만9천수로 전년 동월 대비 12.8%가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20.5%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도 새끼오리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 도축현황

'21.9월 도축마릿수(자체)는 4,748천수로 전년 동월 6,373천수 대비 25.5% 감소  
 - '21.9월 도축마릿수는 전월 4,883천수 대비 2.8% 감소  
 ※ 최근 새끼오리 입식수 : ('21.8월) 4,757천수 / ('21.9월) 4,583천수



### 계열업체 냉동재고량

현재 냉동재고 현황 : 848,658수 ('21. 10. 12일 기준)



## HPAI가 오리산업에 미친 영향은



# 2.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 사육제한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형태는?



## 정부, 올해부터 질병 발생위험 큰 농가 선정 육용오리 1마리당 782원, 종란 개당 472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11월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기존에는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질병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 농가는 평년 수준(200여 농가)이 될 전망이며, 선정된 농가들은 4개월간 2회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 단가는 육용오리의 경우 1마리당 782원이다. 종란은 육용오리 사육제한 마릿수의 10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1개당 472원으로 확정됐다.

협회는 “휴지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리 수급의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매년 이러한 사육제한 조치를 반복하기보다는 오리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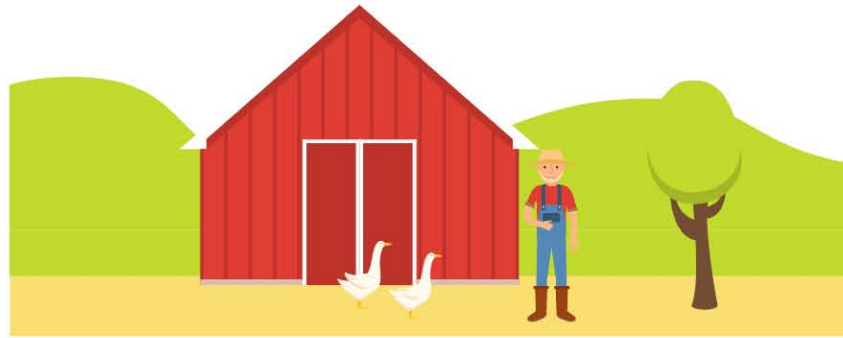
## 1 사업대상자

오리사육 사육제한 지원사업 대상자는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오리 사육농가와 오리초생추 공급자(계열 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중에서 농식품부 선정 핵심지구 내 농가 또는 지자체 방역실태 점검 결과 미흡농장이다.

농식품부 선정 핵심지구는 최근 5년간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AI 발생농장이 있는 지역, 최근 5년간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지역(리) 중 2회 이상 포함된 지역, 밀집단지(500m 내 10호, 1km 내 20호 이상) 해당 지역(리)를 뜻한다.

## 2 지원 대상 및 요건

1. 오리초생추 공급자
2. 오리 사육제한 농가 이외
3. AI 발생 고위험 선정 농가



- 1 순위** ①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  
② 반복발생 지역  
③ 밀집지역 중 위험도 2 이상 해당농가
- 2 순위** 핵심지구 내 '20/'21 발생농가 또는 최근 5년간('16/'17년~) 반복발생 지역(리) 해당농가
- 3 순위** ② 반복발생 지역 중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가
- 4 순위** ③ 밀집단지 지역 내 과거('14~) 발생농가

# 3

##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사업 지원형태는 국고 보조 50% 이하, 지방 보조 50% 이상으로 지방 보조는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방법

사육제한 실시 후 농가별 사업전체 기간(4개월간, 2회 출하물량)에 해당하는 보상 금액의 50%를 11월부터 지급하며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50%를 지급한다. 종란폐기 보상은 종란 폐기를 확인한 이후 지급 가능하다. 사업계약을 파기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종오리농장·직영 종오리농장을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지자체는 농가와 사전 동의한 사육제한 시행일자 보다 늦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위약금(전체 보상금액의 5% 내)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 대상물량

고병원성 A 위험성이 높은 오리농가의 두 차례 사육수수(일제 입식 및 출하 방법)를 대상으로 농장별 사육 마리수는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에서 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해당 축종의 사육마리수 이내이며, 최근 2년간 사육 실적 중 실제 1회 입식시 사육마리수를 감안하여 산정하게 된다. 또한, 사육제한 육용오리 농장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약 계열화사업자, 종오리농장 또는 직영 종오리농장을 소유한 업체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수수의 100% 종란 폐기를 대상으로 한다.

### 사업대상 의무 준수사항

#### 1. 사육제한 실시 농가

사육제한 실시 농가 중 이미 사육중인 오리는 위험시기 등을 감안하여 11월 15일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하며,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육제한 농가는 타 농장에서의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데 단, 사육제한 지원 이전에 농장주 소유의 오리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농장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이후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2. 계열화사업자 등

상기 계열화사업자 등은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 관할 시·도 및 시·군에 종란폐기 종오리 농장 현황(축주명, 주소), 농장별 폐기수량, 폐기계획(일자, 장소, 방법)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종란 폐기시에는 부화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된 종란을 폐기하며, 종란 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가급적 동일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종오리장 소재 관할 가축방역관이 폐기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등을 기록해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사육제한 참여 오리농장에 대하여 사육제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입식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육제한 미참여농가와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기준 등에 반영하여 사업지침 미준수 사항 등 평가예정이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는 동 사업 추진기간 중 오리가 아닌 타 축종으로 허가 받은 농장을 허가 축종을 전환하여 오리를 입식하면 안된다. 동 사업 추진기간 중 사육제한 농가와 소속 농가에 대하여 입식 전에 농가 방역시설 등 확인 후 미흡한 농가는 입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지원 형태 및 사업 의무량



오리 농장

사육제한 마리당 단가는 농가 순수익(오리농가 마리당 2년 평균 위탁수수료에서 평균 농가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80% 적용(2회)



종란 폐기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의 100% 물량에 대하여 2년 평균 병아리 시세의 50%를 적용한 금액(2회)

### <지원 기준>

구분	표준 보상내역	보상금 적용단가
육용오리 보상	출하 마리당 농가 순수익	마리당 782원
종란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마리수 100% 물량	개당 472원

# 농식품부 선정 핵심지구 세부현황

9개 시도, 48개 시군구, 144개 읍면동, 394개 동리

